

1 세계 경제 및 우리나라 경제 동향

□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14.3)

< 국외 경제동향 >

○ (미국) 1월 실물지표 감소, 2013년 4분기 성장률 2.4%로 하향

- 올 1월 생산과 소비가 동반 감소(2009년 3월 이후 처음)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체감지표들도 전달에 비해 다소 부진하면서 실물경기의 둔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고용지표나 선행지수는 아직까지 견조한 추세를 유지

- 산업생산은 IT생산의 증가 전환에도 불구하고 1월중 전월비 0.3% 감소하여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소매판매도 전월비 0.4% 감소하는 등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낙폭이 오히려 확대

-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를 반영하는 ISM 제조업지수는 1월에 51.3까지 급락하면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소비자 신뢰지수는 현재와 미래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81.8로 상승

- 실업률은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6%까지 떨어지면서 고용 개선을 시사하고, 경기선행지수는 전월에 비해서 상승 폭이 확대

- 한편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소비와 재고 둔화, 정부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잠정치로 발표된 3.2%(전년동기비 2.7%)에서 2.4%(2.5%)로 하향

○ (일본) 12월 실물지표 혼조, 2013년 4분기 경제성장률 0.2% 기록

- 지난해 12월중 생산 증가와 소비 감소 등 전월에 이어 실물지표들의 혼조세가 이어진 가운데 실업률이 3%대까지 떨어지면서 고용시장의 우호적인 여건을 반영. 2013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보다 소폭 낮은 0.3%를 기록하면서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성장 탄력이 약화되어 있음을 시사

○ (중국) 1월 물가 안정&수출 확대, 올해 성장률 7.5%로 하락 예상

- 지난 1월 소비자물가는 전월과 동일한 2.5%의 상승률을 기록하여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수출이 선진국들의 경기 호전에 힘입어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10.6%의 증가율 기록. 중국사회과학원은 올해 투자 둔화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년보다 낮은 7.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유로권) 12월 실물지표 부진, 2013년 4분기 역내 성장률 0.3%

- 역내 실물지표들이 12월중 동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경기체감지수가 201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을 시사. 지난해 4분기 역내 성장률은 0.3%(전년동기비 0.5%)로 전분기보다 상승

- (국제금융·유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환율 및 유가 변동성 확대
 -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 하향과 우크라이나의 정정 불안 우려 등을 배경으로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러시아군의 철수 발표 이후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환율도 다시 안정
 - 산유국들(리비아, 베네수엘라, 남수단 등)의 정정 불안과 미 달러화 약세 등이 유가 상승을 지지해 오다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유가의 급등락세가 나타나는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우려로 유가 변동성이 확대

< 국내 경제동향 >

- 실물경제
 - 실물경기 : 산업생산지수 전월대비 1.4% 증가
 - 소비자물가 : 2월중 전월대비 0.3% 상승, 전년동월대비 1.0% 상승
 - 실업률 : 1월 계절조정 실업률 3.2%
- 국내금융
 - 기업자금 및 가계신용 : 1월 은행의 기업 대출 큰 폭 증가
 - 금리 및 환율 : 2월 말(2.21~2.28) 금리 및 원/달러 환율 하락
- 산업별 동향
 - 1월 제조업 생산 : 전년동월비 4.2% 감소, 전월대비 보합

- 1월 서비스업 생산 : 전년동월비 2.0%, 전월비 0.9% 각각 증가

○ 고용

- 취업자 수 : 1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70.5만명(2.9%) 증가

○ 수출입

- 2월 수출, 신흥국 위기 여파 등으로 기대보다 미흡한 1.6% 증가
 - 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한 430억 달러, 수입은 4.0% 증가한 42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9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
 - 수출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IT제품과 자동차가 호조를 보이고 아세안·중국·EU로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신흥국 위기 여파로 당초 기대보다는 회복세가 미흡한 수준
 - 수입은 원유수입의 감소로 원자재 수입이 감소한 반면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은 증가하였으며, 작년 2월 부진(10.3%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4.0% 증가

※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KIET 경제산업 동향』(‘14.3) 자료 인용보도

□ 최근 우리나라 경제동향(‘14.3)

- 최근 우리경제는 고용·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등 전분야의 생산이 증가한 모습

- 1월중 고용시장은 전월에 비해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전년동월비 56.0→70.5만명)
- 2월중 소비자물가는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전년동월비 1.1 → 1.0%)
- 1월중 광공업 생산은 휴대폰, 자동차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1%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 생산은 설효과 등으로 도소매, 숙박·음식업이 확대되며 0.9% 증가
- 1월중 소매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7→6%)에 따른 자동차 판매증가 등으로 11.3월 이후 34개월 내 최대로 증가(2.4%)하며 지난달 감소(△1.1%)를 만회
- 1월중 설비투자는 투자준비를 위한 연초효과 등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4.5%)이며, 건설기성은 9.7% 증가하여 11.12월 이후 25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
- 1월중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비 0.3p 상승, 선행지수는 보합을 유지
- 2월중 수출은 EU, 아세안 및 IT제품 수출 호조로 전년동월비 1.6% 증가하는 등 수출 증가세 유지하였으며 수출입차도 9.3억 불로 흑자 지속
- 2월중 국내 금융시장은 美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불안, 주요국 경제지표 개선 등에 영향을 받으며 변동성이 커진 측면이 있으며, 환율은 소폭 하락
- 2월중 주택시장은 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속(전월대비 0.24→0.20%)되고 있으며, 전세

가격은 전세→월세 전환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나 증가폭은 둔화(0.59→0.49%)

○ 우리경제의 회복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투자 등 민간부문 회복세가 아직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며 美 양적완화 리스크, 신흥국 불안, 엔화약세 등 대외 위험요인이 여전

- 대내외 경제동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충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내수 활력제고·민생안정 노력을 지속
 - 아울러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 ※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동향』(‘14.3) 자료인용

www.nhchem.co.kr

남해화학 비료 국내최초 호주 원재 1등급 원료

농업인의 그늘 아래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 한국인의 지력- 그 뒤에는 고향을 지키며 일해 온 농업인이 있습니다. 남해화학은 그런 고마움을 위해 더욱 나은 제품개발로 보답하겠습니다. 농촌사랑 농업인 사랑 - 남해화학

고객상담전화
080-220-1212
080-210-1717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기업
남해화학주식회사

□ “튼튼한 기초 위에 경제 대도약을 이루겠습니다.” 2014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14.2.20)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20일 (목) 오전 10시, 청와대영빈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대통령에게 올해의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음

- 이번 보고는 박근혜대통령의 신년구상을 실천에 옮기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발표를 앞두고, 경제혁신 3대 전략 중 3개 부처 공통 주제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 기획재정부는 올해의 중점 추진과제로서,

- 정책과제 1.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 정책과제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 및 차질없는 추진
- 정책과제 3. 공공기관의 정상화
- 정책과제 4. 조세의 효율성·공평성 실현
- 정책과제 5.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보고하였음

○ 중점 추진과제 보고에 앞서 2013년도 정책 대응과 평가를 통해 새정부 출범 당시 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대내외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었다고 진단

-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정책의 수립·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대외 리스크 관리 강화, 공공부문 건전성 제고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였다고 설명하였음

< 2013년도 주요 정책 대응 >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추경, 금리인하 등 거시정책 운용 ·규제완화 중심의 4차 례 투자활성화 대책, 창조경제 실천계획	·고용률 70% 로드맵 수립과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유통구조 개선과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
대외 리스크 관리 강화	공공부문 건전성 제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 환변동위험 관리 강화 및 외채구조 개선 ·시장안정을 위한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선제적 대응	·비과세·감면 정비와 공약 가계부 마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한 협업강화, 현장과 소통확대 등 정책 수립·점검 체계 구축

○ 이러한 정책대응을 통해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중첩된 어려움 속에서도 물가가 안정되고, 일자리 여건 개선과 함께 사상 최고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 그동안의 저성장 흐름을 끊고 위기 이전의 성장추세에 근접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음

- ① 내수부진으로 서민중소기업 등의 체감경기 회복 지연 ② 투자활성화 성과 체감도 저조 ③ 청년여성층 일자리 부족 ④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저항과 반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음
- 한편 2014년도 정책여건과 전망을 통해 금년에는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라 경제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의 금융불안 등 대외 위협요인과 함께
- 국내적으로도 가계부채 부담이 지속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음
- 이러한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년 경제정책 추진방향으로서,
 -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면서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추진하는 한편,
 -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구상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감으로써 단년도 시계를 뛰어넘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역점을 둠
- 이러한 정책적 노력으로 금년도 우리경제는 고용이 확대되고 물가가 안정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여 세계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3.9%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이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한 2014년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하였음
 - < 2014년 중점 추진과제 >
 - 정책과제 1.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

- 정책과제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
- 정책과제 3. 공공기관 정상화를 반드시 실천
 - ① 정부3.1 일환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
 - ② 부채관리를 강화
 - ③ 방만경영을 뿌리뽑음
 - ④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
 - ⑤ 관리 감독 체계를 개선
 - ⑥ 열린 고용과 경제활력을 선도
- 정책과제 4. 국민이 공감하는 효율적이고 공평한 조세제도
 - ① 투명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
 - ② 서민생활과 경기활성화를 뒷받침
 - ③ 조세지출 제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
- 정책과제 5.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건전 재정을 유지
 - ①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 ② 협업과 소통중심으로 재정 프로세스 개선
 - ③ 국가채무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 현오석 부총리는 보고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경제가 더 멀리, 더 높이 대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면서
 - 이를 위해 먼저 “공공부문부터 정상화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하고

- 올해에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하는 데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하였음

※ 기획재정부 『“튼튼한 기초위에 경제 대도약을 이루겠습니다.” 기획재정부 2014년도 업무보고』 (‘14.2.20) 보도자료 인용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확정·발표(‘14.3.5)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본방향 >

○ 우리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추진



※ 기획재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참고자료』 (‘14.2.25) 보도자료 인용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담화문의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실행과제(총 59개)를 확정하고 향후 이행상황 등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계획

- 전략별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15개, ‘역동적인 혁신경제’ 25개, ‘내수·수출 균형경제’ 18개 및 ‘통일 시대 준비’

<세부 실행과제>

추진 전략	○ 9+1 과제 - 세부 실행과제
기초가 튼튼한 경제 (15개)	○ 공공부문 개혁(8개) - 공공기관 비리근절 등 공공기관 개혁 - 보조금 및 직역연금 개혁
	○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6개) -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상가 권리금 보호, 노동시장 개선, 개인 정보보호 강화 등
	○ 사회안전망 확충(1개) - 경제혁신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한 보호망 강화
역동적인 혁신경제 (25개)	○ 창조경제 구현(11개) -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확산 등 -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창업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중소→중견기업 경영애로 해소 - M&A 활성화 - 융합 신산업 육성 등
	○ 미래대비 투자(7개) - R&D 총량확대, 해외 우수인재 유치 등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안착, 안정적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등
	○ 해외진출 촉진(7개) - 전략적 FTA 활용 극대화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온라인 쇼핑 수출시장 창출,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고부가가치화 등
내수·수출 균형경제 (18개)	○ 내수(소비)기반 확대(4개) - 가계부채 구조개선, 주택매매시장 정상화, 임대시장 안정, 사교육비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여건 확충(1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 -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유망서비스업 육성 - 지역경제 활성화 ○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고용 활성화, 여성고용 활성화 등
통일시대 준비(1개)	○ 통일시대 준비

※ 기획재정부 『경제혁신 3개년 세부 실행과제』 (‘14.3.5) 보도자료 인용

□ 박근혜정부 2년차 국정과제 성과 확산을 위해 「3대 전략목표, 9대 정책과제」를 밀도있게 추진, ‘행복하고 풍요로운 농업·농촌,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주제로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보고(‘14.2.24)

< 주요내용 >

-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한 근본적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만든다.
 - AI 위험지구 가금농장 신규 허가 제한, 기존 농장 이주 지원
 - 반복 발생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 도입 및 가금시설 리모델링 투자
- 농림축산분야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 남북관계 개선 상황을 고려, 북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온실, 농축산 자재 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등 시범사업 단계적 실시
 - 황폐화된 북한 산림에 시범조림 및 병해충 방제사업 등 추진

- 농업인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대폭 늘린다.
 - 정책자금 금리인하(3.2조원) 및 변동금리 시범도입(1.2조원)
 - 농촌어르신 공동이용시설(공동생활홈, 작은 목욕탕, 공동급식시설) 76개소 신설
- 맞춤형 대책으로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말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영연방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축산업 보완대책 중심으로 개방화 극복 노력

<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보고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월 24일 민생경제를 주제로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
- 농식품부는 박근혜정부 농식품 분야 5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2014년 3대 전략목표를 △경쟁력 제고 △소득복지 향상 △품질유통개선으로 설정하고, 9대 정책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효율성을 기반으로
소통과 배려의 농정 추진

전략목표 1	전략목표 2	전략목표 3
경쟁력 제고	소득·복지 향상	품질·유통 개선
① 농업의 6차산업화 ② ICT·BT 융복합으로 첨단산업화 ③ 개방화 대응 및 농식품 수출확대	④ 농가 소득안정장치 강화 ⑤ 농업재해 대응력 강화 ⑥ 생활 체감형 농촌 복지서비스 향상	⑦ 안전 농식품 공급 확대 ⑧ 미래 식량수급 불안 대비 ⑨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 농식품부, 5년간 국정과제 실천계획(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 수립을 주요 성과로 꼽아

-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가경제 침체와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 정부 5년간의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농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합의’와 ‘참여’에 기초한 자율적 수급안정정책을 통해 지난해 양파배추 등의 수급 불안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가격을 안정시켰으며, 거래 인프라 확충, 산지조직화 등으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재해보험 인프라 확충 등으로 피해조사기간이 단축되는 등 핵심 국정과제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음
- 농식품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투융자 부실 및 농정신뢰를 떨어뜨리는 비정상 관행이 지속되었다고 진단함. 획일적·평균적 농정으로 중앙정부 의존성이 심화되었고,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등 성과가 미흡한 국정과제는 반성할 점으로 꼽았음

○ 반복되는 AI에 대응한 근본적 방역시스템 구축

- 농식품부는 이번 AI 종식 이후 철새 등 위험요인에 적합한 근본적 AI 방역시스템 구축 계획을 마련할 계획
- 한편, 발생농장 3km내 위험지역에 있는 가금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차단방역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나, 앞으로는 국민의 우려 등을 감안하

여 전문가 실사단 파견 및 지자체와 소통 강화를 통해 AI 발생지역의 특성·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다 더 신중하게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뜻을 밝혔음

- 아울러, 이번 AI의 조기 종식을 위해 체계적 차단 방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

○ 농림축산분야 남북협력 사업 적극 추진

- 농식품부는 남북관계 개선 상황을 고려, 북한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인도적 지원 및 단계적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음
- 우선, 남북농업협력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및 추진단 구성 등 관련 기관 간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세계식량기구(FAO)와 같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과도 협력해 나갈 계획
- 특히, 온실·농축산 자재 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황폐화된 산림을 대상으로 시범조림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도 추진하기로 함

○ 농업인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 크게 늘어

-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되는 농가 유형별 맞춤형 사업이 대폭 늘어남
- 농식품부는 농가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변동금리 시범도입 등을 통해 농가 부담을 경감
- 아울러,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를 확충

- 농촌주민과 영세고령농을 위한 체감형 사업도 대폭 확충
- 농촌주민을 위해 공공시설(마을회관, 체험시설, 복지관 등)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생활홈 등 고령자 공동이용시설*(76개소)도 조성
- 한편,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 지원을 위해 친환경 농식품 전문유통센터가 경기도 광주에 이어 전남 나주에도 건립('15년 완공)

○ 맞춤형 대책으로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농식품부는 한중자유무역협정(FTA)과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농업 강국과의 동시다발적 협상으로 인해 올해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철저하게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밝힘
- 무엇보다, 국가별 특성에 맞게 범정부적으로 신뢰있고 책임감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

○ 체감성과 확산을 위해 농정과제 접근방법을 전환

- 농식품부는 스마트 농정으로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지고 비정상적인 관행도 정상화된다는 점을 강조
-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성을 벗어나 지자체·경영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강조

○ 이동필 장관, 위기 극복 위한 농업계의 총체적 역량 결집 강조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방화가

급진전되는 올해는 농업계에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농업인이 자부심을 갖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한 마음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농림축산식품부 ('14.2.24) 『박근혜정부 2년차 국정과제 성과 확산을 위해 「3대 전략목표, 9대 정책과제」를 밀도있게 추진, ‘행복하고 풍요로운 농업·농촌,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주제로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보고』 보도자료 인용

첨단·미래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조 동부팜한농이 이끌어 갑니다

남보다 앞선 생각으로,
남과 다른 새로운 생각으로,
대한민국 농자재산업을 이끌어 온 동부팜한농의 60년

이제 동부팜한농은 '최초'와 '최고'를 넘어
첨단·미래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갑니다.

농업의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
동부팜한농이 이끌어 갑니다.



www.agriculture.co.kr • 고객상담전화 : 1644-0901

동부팜한농

□ 2월 국제곡물가격 동향('14.3.11)

○ 국제곡물가격동향 : 밀, 옥수수 가격 상승, 그러나 여전히 낮은 수준

- 2월 밀(미국산, No.2, 적색종 경질 겨울밀, fob) 수출가격은 톤당 303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1월 대비 5% 상승, 2013년 2월에 비해 8% 하락한 수준. 최근의 가격 상승은 한랭건조한 날씨가 미국 주요 재배 지역 겨울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며, 수출량 증대도 가격 상승에 기여했음. 그러나, 세계 밀 공급량의 증가는 가격상승을 제한. 흑해지역 국가의 밀 수출가격은 3% 하락했으며, 이는 수요 감소와 전반적으로 양호한 2014년 작황전망에 기인한 것임
- 2월 국제 옥수수 가격은 1월에 비해 상승. 미국의 옥수수(No.2, 황색종) 가격은 톤당 209달러로 1월 대비 5% 상승, 2013년 2월 대비 31% 하락. 강한 수출 및 국내 수요(사료 및 산업용)는 2013년도의 기록적 생산에 따른 대규모 공급량이 가져온 가격 하락 압력을 상쇄시켰음
- 2월 국제 쌀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냄. 자포니카 쌀 가격은 호주와 미국의 2014년도 생산량 감소 전망으로 상승하였으나, 기타 쌀 품종 가격은 하락하거나 변동이 없었음. 자포니카 쌀 가격의 상승으로 FAO 쌀가격지수는 1월 대비 4.7% 상승. 태국의 쌀은 바트화 강세 및 무역업자의 공공 재고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상승했음. 태국의 백미(100% B등급) 가격은 톤당 466달러로 2% 상승했음. 인도와

파키스탄의 쌀 가격 역시 통화 강세로, 미국과 남미의 쌀 가격은 불충분한 공급량으로 인해 높게 유지 되었음. 반면, 베트남 쌀 가격은 소폭 하락했음

○ 지역별 주요 동향

- (서아프리카) 대부분 사헬지대 및 연안국가의 잡곡 가격은 변동이 없거나 하락했으며, 이는 2013년 생산량이 평균치 이상을 기록한 것에 기인
· 반면, 나이지리아의 옥수수 가격은 1월 급등(25% 상승)
- (남아프리카) 2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옥수수 가격은 2014년 작황 개선 전망으로 인해 안정되었으나, 여전히 기록적 또는 이에 근접한 수준
· 역내 기타 지역의 옥수수 가격은 불충분한 공급량으로 인해 높은 수준 유지
- (동아프리카) 2월 곡물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하락했으며, 이는 2013/14년도 1, 2기작 작물 수확에 따른 가용량 증가에 기인.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단과 에티오피아의 곡물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며 기록적인 수준
- (아시아) 2월 대부분 국가의 국내 쌀 가격은 2013년도의 양호한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이는 역내 수입 수요 및 정부조달정책에 기인
· 밀과 밀가루 가격은 비교적 높은 수준
- (독립국가연합) 2월 독립국가연합 수입국의 밀가루 가격은 변동이 없으나 여전히 1년 전과 비슷하게 높은 수준

· 감자, 옥류 등 기타 주요 식품 가격은 일부 국가에서 기록적 수준

- (중앙아메리카) 주식작물인 백색 옥수수 가격은 2월 소폭 상승했으나, 2013년도 양호한 생산량으로 인해 비교적 낮은 수준

· 반면, 2월 대두 가격은 2013년 생산량 감소로 인해 급등

- (남아메리카) 밀가루 가격은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에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 유지

· 옥수수 가격은 2013년 기록적인 생산량으로 인해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었으나, 볼리비아는 예외적으로 작황불량에 의해 높은 가격수준 유지

※ FAO한국협회 『국제기구 농수산동향 모니터링 (14.3.11)』 자료 인용

2 국내외 곡물 수급동향 및 전망

□ 품목별 곡물 수급동향과 전망

○ 2013/14년도 세계 곡물수급은 전년 대비 생산량(8.2%↑) 및 기말재고량(7.7%↑) 증가 전망(기말재고율 0.4%p ↑)에 따라 전체 수급여건 양호 전망

- 세계 곡물의 양호한 수급 상황에서 주요 생산국의 기상 악화 우려감 및 수출 수요 등에 따른 강보합세가 전망되나, 원자재, 석유, 세계 경제 및 국제 정세 등의 영향에 따라 변동 가능성 존재

- 세계 주요곡물 생산량

(단위 : 백만톤)

구 분	'12/'13 (추정)	'14.2월 (전망)	전년대비 변동률(%)
곡물전체	2,258.5	2,443.4	8.2
- 쌀	469.5	471.5	0.4
- 밀	656.3	711.9	8.5
- 옥수수	862.8	966.6	12.0
- 대두	268.3	287.7	7.2

- 세계 주요곡물 기말재고량 추이

(단위 : 백만톤)

구 분	'12/'13 (추정)	'14.2월 (전망)	전년대비 변동률(%)
곡물전체	446.5	479.8	7.5
- 쌀	106.8	105.0	△1.7
- 밀	175.8	183.7	4.5
- 옥수수	134.0	157.3	17.4
- 대두	58.6	73.0	24.5

□ 국제 곡물 가격동향

○ 쌀

- 중립종 : ('12) US\$ 728/톤 → ('13) 683
→('14.2) 1,090

- 장립종 : ('12) US\$ 567/톤 → ('13) 488
→('14.2) 445

○ 밀 : ('12) US\$ 287/톤 → ('13) 270

→('14.2) 253

- 옥수수 : ('12) US\$ 272/톤 → ('13) 225
→('14.2) 178
- 대두 : ('12) US\$ 537/톤 → ('13) 511
→('14.2) 509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4년 2월 국제 곡물 시장동향』 ('14.2) 자료 인용

비료의 명품!
대박 엔피코 비료!

앞선 품질로 농업인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2014년도 히트 예감 비종

- 명품300 (30-10-9+고토1)
▶ 고효율 비료 판매 1위
▶ 농조시비(가성) 노동력 절감! 비효율 절감!
- 명품22 (22-7-10+고토1, 분소0.2)
▶ 기존 21확합 업그레이드, 친환경 차안산비료
▶ 이비 괴병 발생 줄여주는 효자비료
- 쌀플러스맛나 (24-4-6+고토4+분소0.2)
▶ 제2도 비료 판매 1위
▶ 1식 2작! 토양과 농작물에 탁월한 비료!
- 일회인450 (24-5-10+고토1)
▶ 고효율 비료 판매 1위
▶ 한번시비로 수확까지 끝내주는 농조시비용 전용성 비료
- 쌀파원에 (17-7-10+고토2)
▶ 고효율 비료 판매 1위
▶ 고농도 입상 유통합유! 고품질 농산물 수확에 탁월
- 스마트21 (21-5-7, 유2(중10))
▶ 입상형, 고농, 수확량 증가에 유효성 3요소로 농조시비 기능성 3종 복합비료
▶ 토양지력 개선, 환경보전형 비료!

2014년 공급비종 : 요스(입상, 표질), 엔피코2(21-17-17), 용성인비(0-17-0), 맛솔비료(기비, 추비), NK골드806(18-0-16), 원예용비료

주식회사 풍농 주문 및 상담전화 080-022-4646

3 무기질비료 바로 알기

- 「무기질비료 최종소비자 인식전환 시급-농작물 수량증대·자연성분 원료 등 장점 많아」-한국비료공업협회 김문갑 전무이사 기고(한국농자재신문, '14.1.16)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이 각광받고 있다. 반면, 무기질비료를 사용한 농작물은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고 생각되고 있으며, 무기질비료 자체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취급받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료업계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무기질비료는 18세기 초 인류가 본격적인 산업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여겨질 만큼 식량 생산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었다. 무기질비료의 생산이 적어 비료 소비가 10a당 5~11kg이었던 1950~60년대의 쌀 생산량은 실제로 10a당 220~330kg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2012년 무기질비료 소비량이 10a당 21~25kg으로 늘어났을 때 같은 면적의 쌀 생산량은 약 480kg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를 보았을 때 무기질비료는 농지 및 농가인구의 감소로 위축되어 있는 농업현실에 좋은 대안이 되는 농자재라고 할 수 있다.

농지·농가인구 감소 현실에서 무기질비료는 좋은 대안

또한 무기질비료의 원료는 모두 자연에서 가져왔다. 무기질비료 중 질소비료는 공기 중의 78%를 차지하는 질소와 LPG와 수증기가 반응해 나오는 수소로 만들며, 인산비료는 공룡의 뼈가 화석화된 인광석이 원료이기 때문에 모두 자연 성분이다. 이러한 무기질비료가 물과 결합해 이온의 형태로 식물에 흡수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무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며, 농작물의 수량을 증대시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무기질비료는 친환경 농산물이 대세가 되고 소비자들이 유기농을 선호하게 되면서 점차 그 설자리가 좁아지게 되었다. 특히 무기질비료(화학비료)의 '화학'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불식시킬 수 없을 때 무기질비료산업의 미래는 밝지 못하

다고 할 수 있다. 농민이 힘들게 생산한 농산물이 단지 무기질비료를 사용해 생산했다는 이유로 외면 받아 소비감소로 이어진다면 무기질비료업체의 경영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무기질비료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한국비료공업협회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농민단체 등과 무기질비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비료에 대한 각종 상식을 담고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료 Q&A'를 제작해 올해 발간할 계획이다. 대국민적인 홍보방안을 찾아 소비자들의 무기질비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면 소비자들이 무기질비료를 사용한 안전 농산물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무기질비료 최종소비자 인식전환 시급-농작물 수량증대·자연성분 원료 등 장점 많아』 (14.1.16) 한국농자재신문 기고내용 인용

Looking Earth, Loving Human
 지구사랑·사람사랑
 국내최초의 민간비료회사
 푸른생각 푸른기업
KG 케미칼
 kgchem.co.kr
 건강한 농촌이
 건강한 먹거리를 만듭니다.
 비료생산 60년,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제공합니다.
 KG케미칼이 60년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제품만을 공급하여
 건강한 농촌살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수도착/원예작 종합복합비료
 가리/고토 비율을 높인 맞춤형비료
 시비량 절감 경제비료
 작물별 맞춤형비료
 작물별 맞춤형비료

고객상담 무료전화 080-024-4300 제품주문 무료전화 080-024-4989
 KG Chemical KG Inicis KG Mobilians KG ETS KG Yellowcap KG ZEROIN KG Passone EDAILY EDAILTY

4 각 회원사 홍보사항 및 신제품 소개

□ 남해화학(주), 칼슘유황비료



작물의 칼슘결핍 예방과 토양개량, 병해충 예방 및 때갈 제거 등의 효능이 있으며, 물에 녹는 정도가 130배 높아 작물이 쉽게 흡수, 시비 효과가 높음

※ 『2014년 비료마케팅 열전 ①남해화학(주) 자체 개발 ‘칼슘유황비료’ 판매 주력』 (14.2.3)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동부팜한농(주) 롱스타플러스



질소, 인산, 칼리에 고토와 붕소를 추가하여 벼 생육후기 품질 및 등숙율이 떨어지는 등의 불편함을 해결한 것이 특징, 생육 후반기까지 안정적 양분공급이 가능

※ 『2014년 비료마케팅 열전 ②동부팜한농(주) 체험마케팅·맞춤형 영농컨설팅 집중』 (14.2.6)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주)풍농, 썰파원에



유황을 다량함유, 광합성을 향상시켜 작물생육증대와 황백화 현상, 감자의 더덩이병, 양파 저온저장시 부패증, 배추 무름병 등 생리병예방에 효과적임

※ 『2014년 비료마케팅 열전 ③(주)풍농 기능성 비료 특화...시장경쟁력 제고』 (14.2.10)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KG케미칼(주), 흙살로



‘부식산+ 부식질+ 미생물+ 미생물활성제+ 미량원소’가 최적의 조합으로 제조된 종합토양개량제, 유용미생물의 증가 등으로 뿌리활력과 양분 이용률을 높이는데 효과적임

※ 『2014년 비료마케팅 열전 ④KG케미칼(주) 완효성 비료 등 특화제품으로 시장 공략』(14.2.13)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주)협화, 한번에 OK



웃거름이 필요없고, 측조 시비 가능, 용출기간이 다른 4가지 요소로 벼 생육주기에 맞게 양분을 공급, 비료 성분의 유실이 적고 흡수비율이 높아 토양 및 수질오염 감소

※ 『2014년 비료마케팅 열전 ⑤(주)협화 지점별 당당제 도입 ‘판매 촉진’』(14.2.17)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주)조비, 통샷



미국 기술특허에 등록된 신물질을 이용하여 개발한 지효성 비료, 토양에 시비하면 비료성분이 천천히 용출되어 밑거름 1회만 시비하여도 비효가 오랫동안 지속

※ 『2014년 비료마케팅 열전 ⑥(주)조비 다양한 신제품으로 시장 공략』(14.2.20)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5 협회 활동사항 소개

□ 2014년 ‘한국비료공업협회 39주년 창립기념일’ 행사 개최(1.9)



- 일시 : 2014. 1. 9(목) 11:30~13:00
- 장소 : 비료협회 회의실
- 내용 : 비료협회 39주년 창립일(14.1.10)을 기념하며 감사패 및 표창패를 증정
 - 감사패 : (주)풍농 이동렬 이사, 카프로(주) 이병주 상무
 - 표창패 : 비료협회 윤선희 과장

□ 통합환경관리제 도입 관련 산업계 간담회 참석(1.10)

- 일시 : 2014. 1. 10(금), 10:00~12:00
- 주최 : 환경부
- 장소 : 한국산업기술원 별관 4층 제1전자평가장
- 내용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설명

□ **농업전망 2014(서울대회) 참석(1.22)**

- 일시 : 2014. 1. 22(수), 09:00~17:20
- 주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 장소 : 잠실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3층)
- 주제발표 내용
 - 세계 경제와 한국 농업전망
 - 품목 전망 및 정책 이슈
 - 대외여건과 수급 및 소득지원제도

□ **제26차 이사회 개최(1.23)**



- 일시 : 2014. 1. 23(목), 11:00~13:00
- 장소 : 한국비료공업협회 회의실
- 참석자(8명) : 협회 이사 및 감사
- 안건
 - 주요안건
 - 제1호 안건 : 2013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 결산 감사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 성과급 지급 평가 결과 보고

- 제2호 안건 :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
- 제3호 안건 : 정관 및 처무규정 개정(안)
- 제4호 안건 : 상임임원 개선(안)
- 기타안건
 - 제1호 안건 : 협회 발전기금 조성 건
 - 제2호 안건 : 제20차 세계토양학 학술대회 지원(안)

□ **제39차 정기총회 개최(2.11)**



- 일시 : 2014. 2. 11(화), 10:30~13:00
- 장소 : 한국비료공업협회 회의실
- 참석자(7명) : 협회 이사 및 감사
- 안건
 - 주요안건
 - 제1호 안건 : 2013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 결산 감사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 성과급 지급 평가 결과 보고

- 제2호 안건 :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
- 제3호 안건 : 정관 및 처무규정 개정(안)
- 제4호 안건 : 상임임원 개선(안)
- 기타안건
- 제1호 안건 : 협회 발전기금 조성 건
- 제2호 안건 : 제20차 세계토양학 학술대회 지원(안)

□ 제56회 FAO 한국협회 정기총회 참석(2.19)

- 일시 : 2014. 2. 19(수), 11:30~12:30
- 장소 : 안양벤처텔빌딩
- 주요안건
 - 전차(제55차) 정기총회 회의결과
 - 2013년도 사업추진 및 수지예산 집행실적
 - 2014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 비료포장재 EPR 전환으로 인한 분담금 단가 조정 관련 회의 개최(2.20)



- 일시 : 2014. 2. 20(목) 14:00~16:00
- 장소 : 한국비료공업협회 회의실

- 참석자(13명) : 회원사, 협회, 한국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내용 : 비료포장재 EPR 전환과 관련 분담금 단가조정 등 논의

□ 제29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정기총회 참석 (2.26)

- 일시 : 2014. 2. 26(수), 18:30~20:00
- 장소 : 오크우드호텔
- 주요안건
 - 2013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안) 승인
 -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 미납회비 처분의 건

□ 일반소비자에게 비료 소포장 홍보물 무료 배포 이벤트 실시(2.12~4.20)



- 접수기간 : 2014. 2. 12(수) ~ 4. 20(일)
- 배송기간 : 1차 배송(2014. 3. 11(화), 선착순 50명)
2차 배송(추후 확정)

- 내용 : 무기질비료 이미지 개선을 위해 비료 소포장 홍보물(요소비료 500g, 원예용복비 500g)을 일반 소비자에게 배포
- 참여방법 : 한국비료공업협회 이메일 주소(kfia1@daum.net)로 주소, 성명을 보내면 무기질비료를 배송함(국내의 경우, 배송비 무료)

□ 비료포장재 EPR 전환으로 인한 분담금 단가 조정 관련 회의 참석(3.5)

- 일시 : 2014. 3. 5(수) 09:30~11:20
- 장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참석자(8명) : 회원사, 협회,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 내용 : 비료포장재 EPR 전환과 관련 분담금 단가조정 등 논의

□ 일반소비자에게 비료 소포장 홍보물 1차 배송 (3.11)



- 접수기간 : 2014. 2. 12(수) ~ 3. 11(화)
- 배송일 : 2014. 3. 11(화)
- 신청자 수 : 78명
- 내용 : 협회 홈페이지 및 각종 커뮤니티를 통

해 무기질비료를 필요로 하는 일반 소비자를 홍보·모집하여 비료 소포장 홍보물을 1차 배송

□ 비료 공급제도 개선방안 및 비료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실무자 워크숍 개최(3.13~14)



- 일시 : 2014. 3. 13(목) ~ 14(금)
- 장소 : 천안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 1층 청실
- 참석자(9명) : 회원사 비료담당 실무자, 협회
- 내용 : 비료 공급제도 개선방안 및 무기질비료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논의

□ 제27차 이사회 개최(3.20)



- 일시 : 2014. 3. 20(목) 11:00~11:20

- 장소 : 한국비료공업협회 회의실
- 참석자(8명) : 협회 이사 및 감사
- 안건
 - 주요안건
 - 제1호 안건 : 임원 개선의 건

6 경제 지표

□ 경제 관련 지표

- 경제성장률 [국내총생산(실질성장률)]
 - ('11) 3.7%→('12) 2.0→('13 4/4분기) 3.9
 - ※ 한국은행 『2013년 4/4분기 및 국내총생산(속보)』 ('14.1.23) 보도자료 인용
- 소비자 물가지수
 - 총지수(전월비)
 - ('13.12) 0.1%→('14.1)0.5→('14.2)0.3
 - 생활물가지수(전월비)
 - ('13.12) 0.2%→('14.1)0.8→('14.2)0.3
 - ※ 기획재정부 『소비자물가동향』 보도자료 인용
- 환율정보 [달러기준 월 평균]
 - ('14.1) 1,065원/\$→('14.2) 1,070→('14.3) 1,067
 - ※ 외환은행 『고시환율』 자료 인용

□ 원자재 관련 지표

- 국제 원자재 가격동향
 - 요소(중동)
 - ('13.12) 349\$/톤→('14.2) 400
 - 암모니아(US Gulf)
 - ('13.12) 383\$/톤→('14.2) 443
 - 염화칼륨(뱅크버)
 - ('13.12) 310\$/톤→('14.2) 295
 - ※ 『Agrus FMB Price Guide』 자료 인용

○ 원자재 통관실적

- 요소 : ('13.12) 328\$/톤→('14.2) 392
- 암모니아 : ('13.12) 521\$/톤→('14.2) 528
- 염화칼륨 : ('13.12) 434\$/톤→('14.2) 360
-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자료 인용

7 정부 및 각 회원사 동정 등

□ 농림축산식품부 인사이동 및 행사

○ 농기자재산업팀 신설(2.10)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내 농기자재산업팀 신설(2.10)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자재 산업 육성·진흥을 위해 분산돼 있던 비료·농약·농기계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 식량산업과 내 농기자재산업팀을 신설

○ 인사이동

- 식량산업과 농기자재산업팀 최남근 사무관 발령 (2.14)
- 식량산업과 농기자재산업팀 인양주 주무관 발령 (2.14)
- 식량산업과 농기자재산업팀장 이용직 서기관 발령(2.17)

○ 「비료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회의(1.10)

- 일시 : 2014. 1. 17(금) 10:00
- 장소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회의실 : 실용화재단 분석실 2층)
- 참석자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농관원 소비안전과, 농협중앙회 비료팀, 한국비료공업협회,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 내용 : 비료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견 수렴

□ 동부팜한농(주) 인사이동 및 행사

○ 인사이동

- 조진기 비료 사업기획팀장(前 비료사업담당 사업기획팀 차장) 승진(1.16)

○ 2014 아그로노미스트(Agronomist) 선발 및 인증서 수여(2.4)

- 동부팜한농은 농업인을 위한 전문 컨설턴트인 아그로노미스트 23명(작물보호제분야 13명, 비료분야 4명, 종자분야 6명)을 선발하였으며, 인증서를 수여함

○ 제주 비트재배 농가에 일손돕기 활동 (2.22)

- 동부팜한농의 농민사랑 봉사단은 제주지역 비트재배 농가에서 수확 작업 등을 도우며 일손돕기 활동을 펼침

□ (주)조비 행사

○ 조비경농장학재단 '2014년 9기 조비경농장학생' 14명에 장학증서 전달(2.19)

- (주)조비와 (주)경농이 공동 설립한 조비경농장학재단이 서초동 본사에서 9기 조비경농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및 입사 시 특별가산점이 부여됨



8 기타동향

□ 2014 농업인 신년 인사회 참석(1.6)

- 일시 : 2014. 1. 6(월), 16:00~18:00
- 주최 : 농민신문사
- 후원 : 농협중앙회, aT, 한국농어촌공사
- 장소 : 농협중앙회 대강당
- 참석자 : 농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정·관계 인사 등 500여명
- 내용 : 갑오년(甲午年) 새해를 맞아 농업계 인사를 모시고 농업·농촌의 재도약을 기원함

□ 한국토양비료학회 2014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실행임원회 회의 참석(2.4)

- 일시 : 2014. 2. 4(화), 14:00~16:00
- 장소 : 수원기상대
- 주요안건
 - 2013년도 사업보고 및 2014년도 사업계획 협의
 - 20th WCSS 행사 준비 사항 보고

□ ‘2014 농산업포럼’ 참석(3.24)



- 일시 : 2014. 3. 24(월), 13:00~18:00
- 장소 :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2층 가야금 B홀
- 주최·주관 : 한국농어민신문
- 참석자 : 비료업계 등 농산업계 대표, 정부 기관 및 학계 관계자 등 100여명
- 내용 :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농산업 효율성 제고와 농자재 수출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강연과 주제발표, 농자재산업 전문가 토론을 하였음

협화
흙은 건강하게 농사는 풍요롭게 -

농업인과 함께한 50년 협화비료
흙을 생각하는 비료

협화는 국내 최초로 규산질 비료를 개발하여 천만톤 이상 공급하고 있으며 **맞춤형비료, 화학비료, 원예용비료, 유기질비료**를 직접 생산·공급하는 종합비료 회사입니다.

협화비료

협화
본 사 : 서울시 종로구 도림동 도림빌딩 6층 전화번호 : 02. 737. 2751 팩스번호 : 02. 732. 3625
포항공장 : 경북 포항시 괴동중 1001번지 전화번호 : 054. 272. 5072 팩스번호 : 054. 272.0645
홈페이지 : <http://www.kfihc.co.kr> 고객센터 무료번호 : 080. 722. 8800